# 일본과 독일이 다른 이유는 신의 숫자다

## (엡5:15~21)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본과 독일이 다른 이유는 신의 숫자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이 보여주는 차이점은 반복해서 우리들 눈앞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야스쿠니신사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전의 전범들의 유해를 안치해놓은 사당인데, 거기에 가서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의 spirit,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받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독일의 경우, 히틀러의 기념비조차 없습니다.
네오나치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그런 그룹들을 독일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포로수용소들을 보존하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마다 실어놓고,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했다고, 유럽 전체의 평화를 깨는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일일이 다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많은 차이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의 이유를 꼭 꼬집어서 드러내주고 있는 글을 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제는 하나의 마을처럼 작아지고 좁아진 이 지구 위에서 21세기를 공유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돌이켜보는 관점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것일까?
그 두 나라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로 규정하기도 한 것처럼 한 인격으로 본다면, 미스터 일본과 미스터 독일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신의 숫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신, 영어로 God, 일본어로는 가미라고 하나요? 그 신의 숫자가 600만에 달합니다.
또, 어떤 일본만화에는 800만의 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체 인구의 50%가 가톨릭신자고, 47, 48 %가 개신교신자입니다, 제가 있을 때 대략 그랬어요.
개신교신자도 가톨릭신자도 아닌 사람이 1, 2%인데, 그 중에서도 자유교회라고 해서 국가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처럼 장로교다, 침례교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개의 숫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은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신이 600만이 있다는 것, 이 차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을 제작하는 나라입니다.
인간들의 기호와 필요와 인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신을 제작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하나님의 이름도 그 600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끌어당기니까.
결국 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인간사회에서 인간들이 같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rule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자기들 나라 안에서는, 혹은 외국 사람과 경제활동을 할 때는 정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가를 한 인격으로 봤을 때는 미스터 일본은 rule이 없고 선이 없고 상식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비의 비문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조작해버려요.
위안부 같은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2차 대전 때 팽창주의로 무장되었던 제국주의의 영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이게 다 룰이 없기 때문인데, 이 룰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한 최선의 대처가 뭘까요?
독일의 태도와 일본의 태도의 차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정치인들이 일본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앞서서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히틀러가 나치 정당의 우두머리가 돼서 독일을 이끌어갈 때 독일교회가 히틀러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때 교회 내에서 반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백교회에요.
고백교회의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르멘 선언인데, 바르멘 선언의 핵심내용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1계명 여호와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과 2계명,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한 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 하고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온 미스터 독일을 지배하면서 지금의 독일이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 때도 피해국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의논을 해서 만듭니다, 해당시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한테 이런 것까지 바랄 수가 없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 있게 행동하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해서 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앞에서 본 본문대로 이해하자면 헛된 말에 속아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잖아요.
헛된 말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헛된 말인데, 여기에 속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는 거지요.
승진하면 만족할 것이다, 이거 속는 거예요, 승진했기 때문에 이사님과 충돌하게 되면서 잘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승진이 안 되고 오래오래 과장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승진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속고 있는 거고, 승진을 위해서 윗사람들 찾아다니며 손발이 닳게 빌어가면서 비위를 맞추고 이러는 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헛된 생각에 속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안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에 속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행동해야 될 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말이 들리려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말하실 수 있고 의견을 갖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헛된 말에 속는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유가, 바위섬 독도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박입니까?
일본이 독도를 아무리 자기들 땅이라고 말해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섬 때문에 싸우지, 독도는 자기네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데, 일본이 무엇 때문에 주저해서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지 않겠습니까?
광개토대왕비문의 글자 내용까지도 조작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고유영토라고 등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바라볼 때는 일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해서 두 번의 원자폭탄으로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계속 하니까 최근의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 지진이 두 번만 더 일어나면 일본 전체가 몰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또 무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0만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한 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경고가 그 나라에서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엔저를 만들기 위해 내 임의대로 엔화를 마구잡이로 찍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강퍅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퍅해지는 겁니다, 강퍅함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독도가 자기네 고유의 땅이라고 교과서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려운 이유는 후손들까지도 자기네들이 파놓은 탐욕의 수렁으로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독일 내에서처럼 그러한 정치가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거의 하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나치를 온 국민이 다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들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교만함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야 가질 수 있는 이웃나라를 향한 평화를 깨는 팽창주의,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너무나 자신 있게 가는 것, 이건 강퍅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강퍅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끊임없는 도발을 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더욱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독일의 고백교회가 독일의 국가교회를 향해서 내던진 비판을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하늘에서 계획된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시간은 다 낭비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금과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 같은 그 계획들, 정말 이루어지면 내 가족, 내 이웃들, 나아가서 내 이웃나라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낭비하고, 멀쩡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북한의 김 정은이 언제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동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이라도 있고 나서 죽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아끼고 아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그 계획이 다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이건 진짜 시대적 예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전국이 바윗덩어리 독도에 운명을 걸고 지금 교만함의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게 정말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독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기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국민들이 다 따라가면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바윗덩어리 조그마한 것에 일본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 백성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이 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술이 취했기 때문에 방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을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건과 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의 참 뜻은.
방탕함 안에 술 취함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방탕함을 주색잡기라고 얘기합니다, 주색잡기가 뭡니까? 술과 여자와 노름을 포함하는 겁니다.
즉, 방탕에 술 취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부터 방탕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했기 때문에 술 취함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려는 것이냐?
왜 사람들이 하늘을 인정하지 않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술 취한 것처럼 취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베 수상이, 조그만 사람이 말입니다,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수상 자리에 올라서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독도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는 강인함을 보이잖아요?
그 단호함 강인함, 이게 술 취해서 '야~' 혀가 돌아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호함도 아니고 멀쩡한 정신에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돈, 돈, 하는 것은 취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돈에 취해있고, 이 세상에 취해있기 때문이에요.
자식, 자식, 하는 것도 자식이라는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이란 것은 이 세상에 취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자꾸 내 마음을 빨아들여갑니다.
그러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차가 좋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차라는 게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보지는 않았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아, 이 차보다 저 차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를 샀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차를 바라게 되고 더 큰 차를 바라게 됩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도 람보르기니, 밴틀리 같은 차를 타도, 왜 인간들은 차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정도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는 내 생활 속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찬미는 뭡니까?
찬미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그리스 시대에 영웅들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그런 노래를 말합니다.
그 말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와 그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을 흠모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깁니다.
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은 그 하나님과 주님 자신을 향한 흠모의 노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님 자신이 영감을 주셔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삶에 연관된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우리의 인격적 고백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셔서 영감을 주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하늘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늘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감사라는 겁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거 내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의 차이!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문에서, '너희가 행동을 할 때 잘 살펴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될지언정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라'
근데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지혜 없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말로만 약 올리시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내 마음, 돈의 좋음에 취하고 명품의 좋음에 취하고 영토를 조금 더 가지면 좋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취하려고 할 때 십자가로 나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암모니아를 코에 들이댄 것처럼 깜짝 놀라 깨는 겁니다.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내 마음을 추슬러서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찬양의 노래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인격으로 비유해서 일본 씨와 독일 씨의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웃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의 경제적인 부와 안정과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